

LA서 발 수술 마친 이현중
“좀비처럼 살아 돌아오겠다”

국내로 들어와 재할…회복 후 NBA 재도전

미국프로농구(NBA) 입성을 위한 1차 도전이 부상으로 마무리된 유망주 이현중(22)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국내에서 재활한다.

이현중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근황을 알렸다. 그는 이달 초 미국 LA에서 부상을 입은 왼쪽 발에 대한 수술을 받은 뒤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달 NBA 샐럿 호네츠의 워크아웃 도중 왼쪽 발 골절상을 입은 그는 에이전트사의 도움을 받아



NBA 입성을 앞두고 부상 암초를 만난 이현중이 국내에서 재활한다. 신인드래프트 개최 직전 입은 부상 불문에 올랐지만, 최고 무대를 목표로 도전을 이어간다. 뉴스사

다수의 NBA 선수들이 치료를 받은 LA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마쳤다. 이현중은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와 재활과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회복 후에는 다시 NBA 입성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이현중은 올해 NBA 신인드래프트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다. 미국 대학 1부리그에서 인정받은 슈팅능력 등을 플레이어의 가치는 인정받았으나, 드래프트 개최 직전 부상을 당한 터라 그를 선택하는 구단은 없었다.

드래프트에서 선발되지 않은 선수들은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전환된다. 이현중이 NBA에 입성하기 위해선 NBA 하부리그인 G리그 등을 통해 기량을 쌓은 뒤 NBA 구단들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되는 시기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2022~2023시즌보다 2023~2024시즌을 목표로 다시 뛰어야 한다.

이현중은 계속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바퀴벌레처럼 어떻게든 버티고, 좀비처럼 다시 살아 돌아오겠다. 지금처럼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 주시면 좋겠다”며 최고의 무대를 향한 집념을 드러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체육 단체간 소통 강화 역점”

대한체육회, 2022년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체육단체 간 적극적인 조직운영 연계 및 행정교류 기반 확립을 위한 ‘2022년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회원 종목단체 회장 6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코로나 19로 인해 2년 만이다. 간담회는 ▲체육계 중점과제 및 국정과제 추진 경과 소개 ▲대한체육회 주요 현안 안내 ▲대한체육회장 주재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 등 종목단체장의 체육행정 전문성 함양과 유관기관 간의 소통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대한체육회는 주요 현안으로 평창동계훈련센터 및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추진 상황, 2022년 스포츠인 종합 교육계획, ANOC 서울 총회 추진 상황,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승부조작 방지 사업 추진 현황, 스포츠 3법 제정 현황 등 핵심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대한민국 체육계 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간의 화합과 단결을 요청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체육단체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발전하고 대한민국 체육계의 도약에 큰 보탬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체육의 주춧돌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체육행정에 계속하여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한달 반만에 필드 나선 우즈, 자선골프대회 첫 날 5오버파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5일(한국시간) 자선 이벤트 대회 JP 맥매너스 프로임을 통해 한 달 반만에 필드에 섰다. 갤러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4번 홀에서 아이언 티샷을 하고 있는 우즈.

리머릭(아일랜드) | AP뉴스사

돌아온 우즈, 드라이버 굿! 숏게임은 아직…

5월 PGA 챔피언십 기권 후 첫 실전
10번 홀서 뒤늦게 첫번패버디 신고
12번 홀 침인 이글맨 갤러리 탄성
우즈 “스코어보다 재미있게 플레이”
대회후엔 14일 열리는 디오픈 출전

비록 5오버파로 성적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건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한 달 반 만에 필드로 돌아왔다.

5일(한국시간) 아일랜드 리머릭의 어데어매너 호텔&골프 리조트(파72)에서 열린 자선 이벤트 대회 JP 맥매너스 프로암 첫날 5오버파를 기록하며 프로 선수 50명 중 공동 43위에 그쳤다. 이글

1개에 버디 1개를 잡았고 보기 6개, 더블보기 1개를 적어냈다. 이번 대회는 프로 선수 1명과 아마추어 3명이 한 팀을 이뤄 프로 선수 50명은 이틀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순위를 정하고, 프로 1명과 아마추어 3명이 팀을 이룬 단체전 점수도 따로 매긴다.

아일랜드의 사업가이자 자선가인 존 패트릭 맥매너스가 자선기금 모금을 위해 여는 이 대회에 우즈가 참가한 것은 2010년 이후 12년 만이자 4번째.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젠더 쇼플리(미국)가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쓸어담아 3타 차 단독 선두에 나섰고, 리키 파울러(미국)가 5언더파 2위로 그 뒤를 이었다.

우즈는 10번(파4) 홀에서 뒤늦게 첫 버디를 신고한 뒤 12번(파5) 홀에서 ‘칩

인 이글’을 잡아 갤러리의 탄성을 자아냈지만 전체적인 플레이는 전성기 시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라운드 중간 인터뷰에서 “우리 스코어카드를 보지 말라. 우리는 즐기고 있다”고 말한 우즈는 경기 후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해 즐거웠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의미있는 대회에서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다”며 스스로도 스코어보다 출전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우즈의 실전 라운드는 5월 PGA 챔피언십 이후 처음. 지난해 2월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절단 위기까지 갔던 우즈는 올 4월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통해 복귀해 47위에 올라 전 세계 골프팬들을 열광시켰다. 5월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에도 출전했지만 3라운드를 마친 뒤 다리 통증을 이유

로 기권했다. 6월 US오픈에는 불참했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드라이버 샷은 좋았으나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숏게임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며 “마스터스, PGA 챔피언십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절뚝거렸다. 자주 걸긴 했으나 종종 카트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우즈는 JP 맥매너스 프로암에 나선 뒤 14일부터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리는 제150회 디오픈에 참가할 예정이다. 디오픈에서 세 차례 우승한 우즈는 2000년과 2005년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정상에 올랐다. 특히 2000년 올드코스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2위를 8타 차로 따돌리고 자신의 첫 디오픈 우승을 차지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치열했던 작전대결…백핸드 싸움 자신감 UP”

첫 국제대회 치른 탁구 미래 김나영

“첫 국제대회에서 가능성과 보완점 모두 확인했다.”

‘무서운 10대’ 김나영(17·포스코에너지)이 생애 첫 성인국가대표로서 참가한 국제대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지난달 29일 귀국했다. 탁구인 부모(김영진 한국수자원공사 감독·양미라 씨) 밑에서 다져진 기본기와 재능, 지난해 대전호수둔중 졸업 후 백한 실업팀 입단이 빛을 보고 있다는 평가다.

6월 ‘WTT 피터 자그레브’에서 김나영은 여자 단·복식 모두 8강에 오르며 무난하게 국제대회 데뷔를 신고했다. 이어 ‘콘텐더 오토세크’에선 조대성(20·삼성생명)과 혼합복식 준우승을 일궈냈다. 한국프로탁구리그(KTTL) 일정을 모두 마친 뒤 5월 29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소해 약 10일간 보강훈련을 중심으로 몸을 추스른 게 주효했다.

김나영은 외국선수들과 맞대결을 떠올리며 “국제무대다보니 매 세트 상대 선수들의 작전 변화가 많았고, 수싸움도 더 노련해 느낀 점이 많았다. 여자 종목 특성상 백핸드 싸움이 많은데, 거기서 밀리지 않은 점은 강



김나영
점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오토세크 대회 성적에 대해선 “결승 상대인 린쉬둥-카이만(이상 중국) 중 카이만은 자그레브 여자단식 32강에서 꺾었던 상대였다”며 “1세트를 이기고 2세트에서도 10-7로 앞섰지만 결국 듀스까지 가면서 세트를 내줘 경기가 기울어졌다. 중국 선수들

이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김나영은 올해 하반기를 국내외 정상제패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이미 3월 중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단·복식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하며 3관왕에 올랐다.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선 대선패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KTTL 원년 시즌에도 단·복식 10승(7패)을 수확했고, 삼성생명과 챔피언 결정전에선 단식 2경기를 모두 잡아 팀에 초대 챔피언 타이틀을 안겼다.

김나영은 “팀의 KTTL 2연패와 개인 첫 최우수선수(MVP) 등극을 노린다”며 “향후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도 정상에 오르고 싶다. 가장 큰 목표는 2024파리올림픽 금메달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김혜정-정나은조의 성장, 배드민턴계 반석

복식조 결성 반년만에 최강 조합 우뚝
인니 마스터즈·말레이 오픈서 동메달
정명희 감독 “윗세대보다 기술 뛰어나”

결성 반년 만에 국내 최강으로 거듭나고 있다. 배드민턴국가대표 여자복식의 김혜정(24·삼성생명)·정나은(22·화순군청·이상 세계랭킹 12위)은 단기간에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국제경쟁력을 뽐내고 있다.

김혜정-정나은은 지난해 11월 결성됐다. 올 3월 전영오픈(동메달)을 시작으로 4월 코리아오픈(우승), 6월 인도네시아마스터즈, 7월 말레이시아오픈(이상 동메달)

에서 잇달아 호성적을 거뒀다. 기존 국가대표 김소영(30·인천국제공항)·공희용(26·전북은행·세계랭킹 4위), 이소희-신승찬(이상 28·인천국제공항·세계랭킹 3위), 백하나(22·MG새마을금고)·이유림(22·삼성생명·세계랭킹 39위) 등이 장기간 호흡을 맞춰온 점을 고려하면 김혜정-정나은의 약진은 더욱 두드러진다.

개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했다. 김혜정은 5월 우버컵(세계여자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김소영이 오른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이탈하자 공희용과 파트너를 이뤄 한국의 12년만의 우승을 이끌었다. 정나은도 김원호(23·삼성생명)와 조를



김혜정(앞)-정나은이 결성 6개월여 만에 국내 최강 여자복식 조합으로 거듭나고 있다. 기존 김소영-공희용, 이소희-신승찬의 아성을 위협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AP뉴스사

이룬 혼합복식에서 코리아오픈 4강과 말레이시아오픈 8강의 성과를 거뒀다.

소속팀 사령탑인 김영아 삼성생명 감독(52)과 정명희 화순군청 감독(58)은 이들의

성장세가 대견하다고 말한다. 김소영-공희용, 이소희-신승찬의 계보를 이을 차기 여자복식 조합으로 전망하며, 또래인 백하나-이유림과 선의의 경쟁을 예상한다.

길 감독은 “(김)혜정의 네트 장악력과 반 박자 빠른 플레이, (정)나은이의 안정감이 더해져 누구와 만나더라도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며 “짧은 복식 조들이 네트 장악력이 떨어져 중국에 열세를 보이고 있다. 네트 장악력이 뛰어난 조인만큼 드라이브와 적극적인 네트 싸움이 더해진다면 중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칭찬했다.

정 감독도 “윗세대 선수들보다 힘은 부족하나 센스와 기술은 오히려 낫다”며 “힘과 스피드가 동반돼야 한다. 국내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를 노려야 한다”고 이들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권재민 기자